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2월 9일(주일) 제1224호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내일(10일)부터 1월 19일까지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각 캠퍼스 본당 오전 5시 20분, CGNTV 기도회 실황 중계

2018-2019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드디어 내일(10일)부터 시작된다.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된다. 해외비전교회에서는 시차에 따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 동참한다. CGNTV는 40일 동안 전 세계에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주제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이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박종길 목사(12월 24일, 26일), 이상준 목사(12월 31일, 2019년 1월 2일), 이기원 목사(1월 7일)도 설교한다(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회 일정 10면).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요일별, 주제별 중보기도를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을 주제로 중보기도를 한다. 특순도 풍성하다. 주찬양, 주향찬, 주사망, 주의빛, 주기쁨, 온누리위십과이어, 장로합창단, 권사성가대, 예꿈뮤지컬, 포레버성가대, 온사랑합창단, 일본여예배성가대 등이 특순을 할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 예배에서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와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성도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은정 권사(여의도공동체)는 "이번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년 부어주시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항진 장로(한강공동체)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윤길중 목사



김상수 목사

캠퍼스 담당목사 이·취임예배

부천 윤길중 목사
대전 김상수 목사 취임

부천과 대전 온누리교회가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박형준 목사가 이임하고, 윤길중 목사가 취임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박태영 목사가 이임하고, 김상수 목사가 취임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는 지난 5일 드렸다. 한창격 장로의 대표기도, 연합찬양사역팀의 특송, 김요성 목사의 환영과 나눔, 성경봉독,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의 말씀, 이·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길중 목사는 "기쁨부음이 있는 예배, 따뜻한 교제, 행복한 만남이 있는 부천 온누리교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는 지난 2일 드렸다. 김태경 장로의 대표기도, 주영광 찬양사역팀의 찬양,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의 말씀, 이·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목사는 "온누리교회에 주신 Acts29의 사도행전적 꿈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목사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박태영 목사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온누리 절약 캠페인 4

교회 예산을 아껴 쓰자

교회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아껴 쓰는 것도 예배다. 내년 1월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부서와 사역팀에 2019년 예산이 배정된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배정된 예산인 만큼 지급된 예산이 계획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를 늘 파악하고 절약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부서와 사역팀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쓰면서 하나님께 칭찬 받았으면 좋겠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파란 눈의 열혈 외국인 순장을 만났다. 그 주인공은 세르게이 페드첸코(러시아) 성도이다. 세르게이 성도는 가정사역공동체 순종7순 순장이다. 세르게이 가정은 누가 가정사역공동체 아니랄까봐 자녀를 여섯 명이나 뒀다. 오는 12일 백일을 맞이하는 쌍둥이 딸까지 자녀 여섯 명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순장 역할은 물론이고, 일대일 제자양육까지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인 성도와 한국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일, 육아, 일대일 제자양육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세르게이와 그의 아내 노미현 성도의 삶과 신앙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순장 ‘세르게이’와 아내 노미현 성도

“남편의 소개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큐티도 남편이 <생명의 삶>을 권해서 처음 해봤고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성경묵상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해봤어요.”

세르게이의 아내 노미현 성도의 고백이 뜻밖이었다. 아내의 신앙과 기도가 파란 눈의 열혈 외국인 순장을 만든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다. 러시아 사람 세르게이가 한국인 아내를 교회로 이끌었다.

세르게이는 1996년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학교에서 알게 된 국제학생들(재미교포)에게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를 소개받고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세르게이는 한국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다.

“공부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졸업할 즈음 한 대기업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동유럽 출신을 구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준비하던 논문 주제와 연관 있는 분야라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 회사에서 아내 노미현 성도를 만났다. 2000년 2월 14일 봄비는 구내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발렌타인데이라고 구내식당에서 초콜릿을 나눠줬어요. 구내식당 자리가 다 차고 제 바로 앞자리만 남아있었는데 남편(세르게이)이 식판을 들고 그 자리로 오더라고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국인이 말 시킬까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왜 밥 안 먹고 요구르트만 먹느냐고요. 그렇게 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노미현 성도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위독했다.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는지 모른다. 그 불안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누군가한테 토로하고 위로 받고 싶었다. 그 순간 세르게이가 준 명함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라 그런지 느낌이 뭔가 이상하고 무척 불안했어요. 그 힘든 순간 세르게이의 명함을 발견하고 전화를 했어요. 세르게이가 저에게 다짜고짜 “교회 다니냐”고 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 봉사한다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이 싹 텄다. 둘이 연애하면서 세르게이가 노미현 자매에게 온누리교회를 소개했다.

“남편이 큐티를 해야 한다면서 <생명의 삶>



외국인 순장 세르게이와 노미현 부부, 여섯 자녀(첫째 다니엘, 둘째 크리스티나, 셋째 이든, 넷째 엘리야, 쌍둥이 마리아와 안나)

을 권하더라고요. 말씀묵상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해봤어요. 큐티하면서 힘든 마음을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로 초대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 와서 러시아 말 하나도 몰랐는데도 세르게이와 함께 러시아어예배(온누리M미션)를 섬겼어요.”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던 둘은 2002년 6월 6일 결혼에 골인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같은 아이도 셋이나 낳았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세르게이가 너무 바빠졌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몰라볼 정도였다.

“육아가 너무 힘든데 남편은 일이 바빠서 도와주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젊은부부학교 세미나 광고를 보고 바로 신청했어요. 그 곳에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변화되길 바라던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변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남편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되면 마구 화를 냈던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먼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젊은부부학교 세미나를 통해 아내가 변화되었다면, 말씀통독은 이 부부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젊은부부학교 세미나가 끝나고 부부가 함께 성경통독을 했어요. 여러 부부들이 함께 성경통독을 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였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자유를 찾게 됐고, 기도가 변하더라고요.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니까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넷째를 낳고 싶은 소망도 그때 생겼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자녀의 축복은 넷에서 그치지 않았다. 세르게이와 노미현 부부는 지난 9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안 그래도 자녀 많이 낳기로 유명한 가정사역공동체에서도 자녀가 가장 많은 가정으로 등극했다.

“제가 자녀를 더 낳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넷도 힘든데 어떻게 더 낳을 거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왜 받아보지도 않고 거절하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쌍둥이더라고요.”

세르게이에게 올해는 정말 뜻 깊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인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그동안 러시아어예배 지체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는데 한국인에게 일대일 제자양육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한 세르게이는 올해 처음으로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쌍둥이 출산을 앞둔 시점이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묵상 그리고 순종과 헌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과 헌신’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장으로 섬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부족한건 사실이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장 제안을 수락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르게이 가족은 이촌동에 살았고 아이들은 용산에 있는 러시아학교에 다녔는데 2년 전 경기도 과천으로 이사를 했다. 이유는 교육 때문이었다. 명문학교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기 위한 결정이었다.

“언어보다 가치관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근처로 이사도 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촌동에 살 때는 교회가 가까워서 작은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어려워졌어요.”

예전처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도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통독과 묵상, 기도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도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도움이 안돼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세상에서는 후손이 조상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조상들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기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훌륭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 역사 중에 예언을 따라 온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예언된 일을 온전히 이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개가 넘는 직간접적인 예언을 통해 오셨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단순한 인간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신비하고 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심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약속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창 3:15).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포기한 권리를 회복하시고, 인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과 사탄의 종이 된 뱀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뱀에게 “지금 너희가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너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활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너는 지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을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네가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너의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너는 패배할 것이다. 너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가 실행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인류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사탄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통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분은 구원자인 동시에 악한 자에 대한 심판자입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 사탄의 모든 간계는 수포가 되고, 그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행될 때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처벌하므로 인간을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동시에 은혜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 속에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두 후손의 갈등과 충돌

여러분, 최초의 복음을 ‘원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스필전 목사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전해진 가장 첫 복음적 설교이다. 여호와 자신이 설교자이시고 인류 전체와 어둠의 권세자를 청중으로 하는 참으로 기념비적인 설교였다.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 이처럼 위대한 복음의 약속이 이렇게도 죄를 범하는 즉시 전해졌다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

최초의 설교, 하나님이 하신 복음의 설교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 주어진 모든 인류와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든 어둠의 권세자 사탄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놀라운 설교입니다.

히브리어는 대부분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명사부터 시작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증오심’입니다. 증오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두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증오심을 둔다는 것이 어

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온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오심을 통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을 사탄으로부터 떼어내고, 사탄을 공의로 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증오심과 적대감은 갈등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단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뱀과 여자가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가 되어 싸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싸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다시 싸우는 단계입니다. 세 단계 모두 갈등과 전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했고,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둘 사이에 적대감과 증오심을 일으켜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악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면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선한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싸우고 있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미워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은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도와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질투심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질투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와는 뱀 뒤에 있는 사탄을 보지 못했고, 그의 말에 속아서 그 속에 있는 질투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와 사탄이 친구가 되지 못하도록 증오심을 넣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탄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전쟁입니다. 사탄의 자손이 누구

일까요? 사실 사탄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사탄이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 사탄의 편에 서 있는 후손들이 나타나 경건한 후손들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경건하게 살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자손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두 후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살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싸우는 후손을 대표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사탄의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은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인 후손의 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썰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창 4:23).

복수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아내들에게 자랑하듯 말합니다. 살인을 자랑하는 후손이 된 것입니다. 반면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미 인류 안에 두 후손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두 후손의 충돌이 계속됩니다.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는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 노아,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두 후손들의 충돌은 계속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대일 전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탄과 여자의 후손의 부딪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진멸하시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것도 대가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피를 흘리는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크리스천 인플루언서(Influe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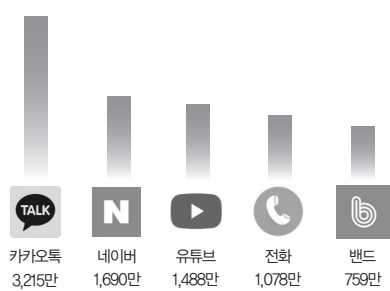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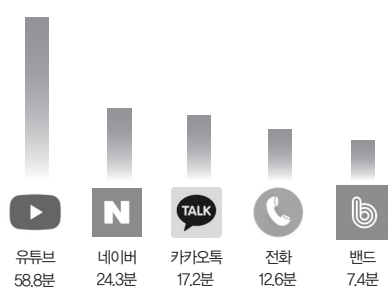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꼭 필요하다!

(SNS 유명인)

복음 전하고, 전 세계 모든 세대와 소통하는 기독교 콘텐츠
신앙 시, 크리스천의 일상, 오해 바로잡기 등 콘텐츠 다양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대세다.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의미한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 공간을 뛰어 넘어 기업과 방송가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장경동 목사를 제외한 이렇다 할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콘텐츠는 가득하다. 전도를 물리친 사례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을 정도니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꼭 필요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uri.org

2018년 10월 이용자 TOP5 앱
일평균 이용자 수(안드로이드 기준)2018년 10월 이용자 TOP5 앱
일평균 이용시간(일평균 총 이용시간/이용자 수)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7살 소년 라이언.

앞서 언급한대로 인플루언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수십 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한 개인’을 말한다. 인플루언서들은 수많은 팔로워를 기반으로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요즘 시장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뜨고 있다. 기업들은 홍보와 마케팅을 할 때 유명 연예인보다 인플루언서를 선호한다. 인플루언서들은 수많은 팔로워를 기반으로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뛰어 넘어 광고, 출판 등 거의 모든 분야로 뻗어 나가고 있다.

대체 인플루언서가 뭐길래 기업들이 앞다투어 찾고, 대중 수백만 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걸까?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다. 동영상, 사진, 글귀 등 재미있는 이야기나 개인의 생각과 신념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한다. 대중들은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팬덤을 형성한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이 온라인과 지상과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게임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브(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MBC 예능프로

램 북면가왕에 출연했고, 아프리카 TV에서 축구 1인 방송을 하는 BI ‘감스트’는 K리그 홍보 대사에 위촉됐고,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도 출연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캐리 언니’는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 출연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방송인들과 유명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를 공략하고 있다. JTBC는 방송인 박준형과 함께 웹예능 ‘와썹맨’을 제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온라인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자금은 TV없이도 살아도
휴대폰 없이는 못사는 시대

지금은 TV없이도 살아도 휴대폰 없이는 못사는 시대다. 평일 저녁 10시면 귀가를 종용했던 드라마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다. 이 시대 사람들은 TV 대신 휴대폰을 보고 산다. 모바일 애드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 10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을 조사했는데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카카오톡 3,215만, 네이버 1,690만, 유튜브 1,488만, T전

화 1,078만, 밴드 759만 명이나 됐다. 일일평균 이용시간은 유튜브 58.8분, 네이버 24.3분, 카카오톡 17.2분, T전화 12.6분, 밴드 7.4분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일일 평균 50분 이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이 조사에 집계되지 않은 IOS 사용자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합치면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루 50분 이상은 모바일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콘텐츠 소비자의 연령대가 넓어지고, 이용시간이 증가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의 영역이 확대 및 확장되고 있다. 일상, 요리, 뉴스, 전문지식, 놀이, 게임, 여행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테마의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이 기독교 콘텐츠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긍정적인 기독교 콘텐츠는 전무한 실정이다.

긍정적 기독교 콘텐츠 통한다!
CGNTV KNOCK 미니휴먼다큐가 증명

유튜브에서 ‘교회’를 검색해봤다. 상위 10개 영상은 예배 실황, 찬양, 강의 영상, 간증이 주를 이뤘다. 영상의 길이는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1시간 30여 분이였다. 조회 수는 평균 1천에서 5천 내외였다. 물론 이 콘텐츠 또한 신자들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비신자나 초신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반대로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교회 고발 영상, 전도를 물리친 일화 같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콘텐츠는 조회 수가 수십 만회를 기록하고 있었다.

비신자들과 새신자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침 CGNTV가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 CGNTV는 모바일 전용 콘텐츠가 비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CGNTV KNOCK 미니휴먼다큐 ‘수원역 브이로그’는 매주 수원역 노숙인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삶을 조명 한 콘텐츠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CGNTV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수원역 브이로그’는 조회 수가 120만 건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작한 KNOCK 미니휴먼다큐 ‘현

목이의 미니멀라이프’도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영화감독 추상미가 기독교 정서를 녹여 만든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도 세간에 호평을 받으며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

당신이 바로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당신도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이는 것이 많고, 좋은 기술이 있어야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흘리개 꼬마도, 70살 노인도 얼마든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온라인의 장점은 모든 세계, 모든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신자들은 물론 비신자들과 즉각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유튜버는 7살 꼬마였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소년 라이언이 운영하는 ‘라이언 토이스리뷰’ 채널이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 어르신인 농사짓는 노하우를 원데이 크(한 번에 촬영한 편집 없는 영상)로 게시한 ‘성호육묘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5만 8천명을 넘겼다. 71세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의 구독자는 무려 58만 명이나 된다. 박막례 할머니는 유튜버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휴대폰만 있으면 사진과 영상을 찍고, 글을 써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만큼 비신자들과 소통하기 좋은 공간이 없다.

예로부터 기독교 콘텐츠는 어디서든 통했다. 소설 <벤허>는 50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다. 망설이지 말고 긍정적인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에 게시해보자. 신앙 시, 하루 묵상, 크리스천의 일상, Q&A, 오해 바로잡기, 비신자를 위한 기독교 문화 소개, 기독교 인물 소개 등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세간에 출판된 책이나 강의를 참고해도 좋고 IT사역팀 로그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IT 사역팀 로그온 02-3215-3651

전문가 기고

‘재미의 인플루언서’를 넘어 ‘의미의 크리에이터 미디어’로



함태경 CGNTV
경영전략본부장

초연결사회의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등장, 의사소통체계의 혁신과 세대를 초월한 실시간성, 쌍방향성, 확장성, 융합이라는 신문화(New Culture)의 출현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신조어 중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십만, 수백만 명의 팔로워(Follower·구독자)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의 파급력이 날로 막강해지고 있다. 얼리어답터, 트렌드세터가 남보다 빨리 새로운 흐름을 경험했다면,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타인과 함께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라는 공유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며 짧은 시간 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공감을 형성하고 생산, 유통, 소비, 매출, 수익 등에 대한 사람들의 기존 태도와 행동양식을 변혁시켜 특정 시민사회와 국가를 넘어 지구촌 곳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메시지를 유포하고 있다.

담장 넘는 창의성

인플루언서의 활약은 과거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인 브랜드 프로모션 이상의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이 더욱 각광을 받는 모양새다. 트렌드, 유행을 선도했던 연예인 등 몇몇 유명인의 영향력은 점차 ‘고전’이 되고, 톡톡 튀는 개성과 독창적인 콘텐츠 제작 및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SNS 소셜미디어 스타, 파워블로거, 유튜브 버가 ‘신 주류’가 되고 있는 추세다. 콘텐츠와 인물에 대한 팬덤(fandom)이 형성되면서 소셜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스토리텔링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클릭과 공유를 낳고, 공유는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은 ‘대세’ 문화를 만들고 있다. 입소문 마케팅 전문가들은 “어떤 계층의 어떤 연령대이든, 모든 집단에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강력한 존재가 있다.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롭고 흥미진진한 것들을 남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한다”고 평가한다.

인플루언서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 있다는 점이 하등 이상하지 않은 환경 또한 조성되고 있다. 현재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모델로

한 크랍히어로즈는 구독자 190만 3,431명, 꼬부기아빠 My Pet Diary는 구독자 34만 1,738명을 갖고 있다. 강아지 ‘인절미’로 유명한 인스타그램 짱절미(zzangjeolmi)는 게시물 169개에 구독자가 99만 명을 넘어섰다.

인플루언서가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움을 먹고 사는 대중들에게 격이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미디어, 온라인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는 모이는 공동체에 머물지 말고 흠어지는 공동체에 까지 염두에 두고 미디어, 온라인 등 기존 플랫폼의 담장을 뛰어넘을 용기와 해안이 필요하다. 한국 기독교는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려줘라”, “아는 것과 보는 것이 불일치할 때 흥미가 생긴다”, “거짓 없는 진짜배기를 선물하라” 등 강력한 입소문을 낳는 이야기 3원칙을 제시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되, 응

했다. 유튜브 공간도 이단·사이버 콘텐츠가 정통 기독교 콘텐츠보다 더 세련되고 양 또한 많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무제한적 죄의 공간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는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플루언서 또는 미디어 종사자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세계관, 역사관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찾아가서 넣어주는 시대에서 벗어나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찾아 나서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미디어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마음대로 변환시켜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복음적이면서도 비기독교인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문화, 특성화되지 않은 미디어는

CGNTV가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되 끊임없이 변하는 플랫폼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혼의 근력과 한국 교회의 교회됨을 겸손하게 돕는 ‘돌로스 미디어’ 되기 위해 기도, 관심, 후원, 고언 필요

용력과 상상력이 배가된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 집단 지성과 지속 가능한 진정성과 실천력까지 갖춰질 때 한국 기독교는 구태를 벗어난 진 시대의 희망인 인플루언서로 재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터인 스티브 포그(Steve Fogg)의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그가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교회가 넓은 공동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상 이런 소통 출구는 없었다. 그러나 클릭 한 번하는 게 교회가 소셜미디어를 잘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제시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교회가 유의해야 할 7가지를 찾아서 참고해도 좋다. 웹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돌로스 미디어

문제는 일반 사회와 호응할 수 있는 근력을 갖춘 기독교계 인플루언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콘텐츠들은 적지 않지만 교회 밖과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는 목회자나 기독교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교회가 온라인의 바다를 경술히 여기다가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콘텐츠보다 부정적 콘텐츠가 많게

흥미 유발 흡인력이 부족해져 설령 클릭했다더라도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소통의 방해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용자원을 연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목표를 잘 설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탁월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해야 한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미디어 물결에 교회는 창의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CGNTV가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여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된 KNOCK(<https://www.facebook.com/cgntv.knock/>)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콘텐츠이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통용 가능한 오픈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KNOCK 미니휴먼다큐 ‘이태원 준섭이’는 조회 수 211만회, ‘잃은 양 찾기’는 188만회, ‘데이킷이지’는 127만회를 넘어섰다. 오픈플랫폼을 활용해 ‘짬방’으로 선보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부자아빠 이야기’는 조회 수 52만회를 가볍게 넘기기도 했다. 현재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와 모바일웹에서 KNOCK영상들은 ‘세상에

서 가장 순한 3분 영상 브랜드’ SOON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위한 3분 Message, 미니휴먼다큐, 힐링뮤직 KNOCK REPLAY, 말씀 PAUSE(퍼즈 SKETCH, 퍼즈 STORY, 퍼즈 NOW), 미니콧 ‘두근두근 마카롱’과 ‘무리, 수’,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 웹드라마, 크리스천 30초 공감 ‘삼공’ CGNTV 순간의 감동 ‘SOON CLIP’ 등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극장 관객 12만 명을 넘어 기독교 다큐영화 사상 2위를 기록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는 기독교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특정 젊은이들에게 통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 따르면 내년 1월경 군 장병 가운데 10만 명이 ‘서서평’을 관람하는 기록을 세울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서서평’을 관람한 한 부대 전원이 1년 가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케 됐을까. 물론 독심 있게 ‘서서평’ 상영을 강행한 군관계자 및 군선교팀의 헌신과 열정이 큰 몫을 했겠지만 진정성이 있는 감동코드가 있다면 젊은이들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 역지웃음은 순간이요, 울림 있는 메시지는 여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CGNTV는 앞으로 기존 방송 콘텐츠를 좀 더 세분화, 전문화하는 한편 온누리교회 순(공동체)모임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2~5분 짧은 영상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가정예배 콘텐츠를 제작해 예배문화 회복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전도에서부터 모든 신자 양육과 재교육, 임직 스쿨, 개인(그룹)별 맞춤 성경공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AI 교육플랫폼 구축하는 데도 힘쓰고자 한다. 넘쳐나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 갈급증에 무한 노출돼있는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VOD(Video On Demand) 맞춤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준비의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한다. 세상의 미디어는 재미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CGNTV는 인생과 삶, 영혼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되 재미와 공감이 공히 녹아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미디어 공간을 정화하는데도 앞장서려고 한다. CGNTV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순간의 감동을 이끄는 미디어가 아니라 영성·지성·감성의 균형을 갖춘 미디어가 되고자 한다. CGNTV가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되 끊임없이 변하는 플랫폼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개인 영혼의 근력과 한국교회의 교회됨을 겸손하게 돕는 ‘돌로스 미디어’가 되기 위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고언이 필요하다.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손’

양지 서빙핸즈팀, 온누리요양센터 예배잔치

미완성의 완성이랄까. 한평생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겠냐만 노년은 그 의미가 유난히 깊다. 노년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좋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없다.

여기, 어르신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주는 작은 예수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양지 온누리교회 서빙핸즈팀이다. 서빙핸즈팀이 준비한 예배잔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어르신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하고 있는 양지 서빙핸즈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 820명)의 14%를 넘어섰다. 유엔(UN)이 정의하고 있는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진입한 것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760만 4,408명에 달한다(14.6%). 이처럼 노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다. 인터넷에는 ‘꼰대’, ‘~충’ 등 노인을 비하하는 언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 받고, 사랑 받아야 할 노년이 어찌다 이렇게 잿빛으로 변해버렸을까.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귀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무너지면 100세 시대는 재앙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다. 노년이 되면 외로움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떠나기 때문이다. 노인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노인들끼리 혹은 홀로 외로움과 씨름하는 경우

가 많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복음만이 해결책이다. 노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노인들에게 다가가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6명의 작은 예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웃음).” 노인들을 위한 작은 예수를 여섯 명이나 만났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지 온누리요양센터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만든 양지 온누리교회 서빙핸즈팀이 그 주인공이다. 6명의 작은 예수들은 2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찾아가 예배잔치를 열고 있다. 통기타, 탬버린, 마리카스(흔들어 소리 내는 악기)로 찬양을 연주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양지 서빙핸즈팀이 준비한 예배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다. 잃었던 소망과 힘을 되찾고 있다. 양지 서빙핸즈팀은 말씀과 찬양으로 차린 생명의 밥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있다.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예배잔치는 어르신들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여는 최고의 도구다. 섬기는 이나 섬김 받는 이나 예수 안에서

함박웃음 지을 수밖에 없다.

양지 온누리교회 서빙핸즈팀의 손은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 과정부터가 은혜다. 서빙핸즈팀의 기도제목은 단 하나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르신들이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한다. 그 기도의 능력이 예배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게 느껴진다. 서빙핸즈팀이 준비한 예배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아름답고 경쾌한 예배잔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그 시간만큼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다. 흥겹게 찬양하고 손뼉을 치면서 주를 찬양한다.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도 시청한다. 지난해 5월 양지 온누리요양센터에 입소한 강찬송 어르신(가명, 71세)은 매주 서빙핸즈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빙핸즈팀이 준비한 예배잔치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서빙핸즈팀의 찬양을 통해서 죽어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내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거든요. 이곳까지 찾아와 우리를 위해 예배잔치를 준비해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서빙핸즈팀을 기다립니다.”

안은혜 어르신(84세, 가명)도 양지 온누리교회 서빙핸즈팀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한껏 치켜세웠다.

“예쁜 사람들이 매주 찾아와서 예배를 섬겨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서빙핸즈팀의 찬양과 기도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기쁨 어르신(82세, 가명)은 서빙핸즈팀을 만나고 나서 영적 갈증이 해결되었다고 고백했다.

“서빙핸즈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자막에 나오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섬겨주시는 예쁜 사람들(서빙핸즈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귀한 손길이 더 많아지기를...

양지 온누리교회 서빙핸즈팀은 4년 전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양지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어르신 식사수발을 돕는 봉사팀이었다. 그런데 식사수발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잔치를 준비했다.

양지 서빙핸즈팀 총무 김은정 집사는 서빙핸즈에서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제가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일은 익숙하고 편했지만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공활한 마음과 자원을 부여주셨습니다.”

김혜경 권사는 친정어머니가 양지 온누리요양센터에 입소하면서 서빙핸즈팀을 섬기게 됐다. 김 권사는 어머니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서빙핸즈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이정이 성도도 어머니가 양지 온누리요양센터에 입소하면서 서빙핸즈팀에서 섬기게 됐다.

“어머니가 혼자 외롭게 시골에 계시는 게 걱정이 돼서 양지 온누리요양센터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와 어르신들을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서빙핸즈는 양지 온누리교회를 주축으로 다른 교회와 동역하는 연합사역이다. 용인 성결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원미희, 박성희 집사는 “서빙핸즈팀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박은숙 팀장(양지 서빙핸즈팀)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제목을 나눴다.

“귀한 손길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의: 010-5360-0539

아이 선택한 용기 있는 엄마들을 위하여

맘애크스사역팀 크리스마스 음악회 개최

지난 1일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소속 맘애크스사역팀이 개최한 '2018년 맘애크스 크리스마스 음악회'에서 아이를 선택한 용기 있는 엄마들을 만났다. 맘애크스사역팀은 그 자리에서 소중한 아이들이 편견 없는 사회에서 자라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기도했고,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혼양육모들에게 이보다 귀한 선물이 없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미혼양육모들과 아이들이 2018년 맘애크스 크리스마스 음악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2018년 맘애크스 크리스마스 음악회는 순전히 엄마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였다. 행사에 참석한 엄마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행복한 추억은 덤이었다.

행사장은 엄마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로 북적였다. 엄마들은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보다 못한 맘애크스사역팀이 발 벗고 나섰다.

“민지야(가명) 어서 가서 밥먹어. 지훈이(가명)는 내가 보고 있을게.”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맘애크스사역팀원들은 엉악없는 친할머니 같았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 엄마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막 올랐다. 포문은 클래식 앙상블의 바이올린 협주가 열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바이올린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뽀로로’ 주제곡을 연주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아이들이 뽀로로 주제곡을 따라 부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

이번에는 가수 박지현(그룹 V.O.S)이 출연했다. 자신의 히트곡 ‘큰일이야’와 ‘보고 싶은 날에’를 열창하면서 엄마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했다.

“아이들 기르는 게 버겁고 많이 힘들지요? 지금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엄마들의 눈물을 터뜨렸다. 곳곳에서 눈시를 불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

렸다. 가수 박지현의 희망메시지는 분명 엄마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가수 박지현이 찬양 ‘온맘 다해’를 부를 때는 객석에 있던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춤을 췄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멋진 무대가 계속 이어졌다. ‘익스프레션 크루(비보이 팀)’, 랩퍼 ‘아이작 스쿼브(Issac Squab)’, ‘박지용 재즈밴드 With 보컬 Ash’, ‘신이 난타(난타팀)’, ‘이브 두 메리(Eve2Mary)’가 오로지 엄마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였다.

메시지는 오만 목사가 ‘우리처럼 되신’을 주제로 전했다. 오 목사는 엄마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소개했다. 그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 엄마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를 받고, 당당하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친정엄마보다 더 친정엄마 같아요”

맘애크스사역팀은 미혼양육모들을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 미혼양육모 보호시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미혼양육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보건교육을 하고 있다. 미혼양육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엄마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한다. 보통 엄마들은 보호시설에서 4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쉽지 않다. 감싸줄 울타리 하나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허

다하다.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한 현실 앞에 놓인 엄마들에게 맘애크스사역팀이 등대가 되어주고 있다. 친정어머니처럼 살뜰하게 엄마들을 품고 있다.

엄마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다. 마음 편히 아이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절실하다. 지낼 곳이 없어 숙박시설을 전전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맘애크스사역팀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1년에 엄마 4명을 선정해서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집을 얻는 절차도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래야 엄마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아이와 지낼 수 있는 집을 얻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그릇, 수저, 젓가락, 냄비, 전기밥솥 등 가재도구와 생활용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맘애크스사역팀은 양재권사회나 지인들을 통해서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을 기증받아 전달하고 있다.

맘애크스사역팀은 엄마들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도 해주고 있다. 그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시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맘애크스사역팀이 실시하고 있는 1:1멘토링이 엄마들의 신앙성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1멘토링은 맘애크스사역팀 봉사자들과 엄마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신앙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램이다.

미혼양육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 2년 된 김사랑 자매(가명, 32세)는 1:1멘토링을 통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기도제목이 있으면 멘토 권사님께 언제든 지 기도를 부탁해요. 그때마다 기도해주시고, 영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고 자립계획을 세울 때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필요한 물품도 얻어다 주셨고요. 매년 아이 생일에는 선물도 보내주세요. 권사님이 제게 주신 사랑에 힘입어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우는 멋진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민정 자매(가명, 30세)는 맘애크스사역팀이 준 사랑 덕분에 회복을 경험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육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두려웠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멘토 권사님께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이후 정말 많이 회복되었어요. 제가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도 해주셨습니다. 저의 멘토로 섬겨주신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친정엄마보다 더 친정엄마 같아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맘애크스사역팀’

맘애크스사역은 미혼양육모와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사역이다. 맘애크스사역팀은 엄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전국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맘애크스사역팀은 5년 전 강남A공동체 소속 권사 4명(이윤숙 권사, 차윤복 권사, 이한성 권사, 박진아 권사)에 의해 만들어진 평신도 사역팀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미혼양육모들을 돕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면 수많은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권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엄마들을 돕고자 사역팀을 만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지원 덕분에 맘애크스사역팀 봉사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정기적으로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천 온누리교회에 지부가 생겼다. 이처럼 맘애크스사역팀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역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 뒤에는 강남A공동체 4명의 권사들의 헌신이 숨어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 기도를 먹고 자란 맘애크스사역팀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문의: 010-9080-9605

기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육신’ 이다

자기비움으로 시작해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

아기 예수가 나신 크리스마스만큼 뜻 깊은 날이 또 있을까?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황재명 목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뜻 깊은 글을 보내왔다. 이 글을 읽으며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 글은 3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온 사건이

바로 ‘성육신(incarnation)’이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일어난 적 없는 전대미문 사건 중의 사건일 것이다. 바로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유대 청년 예수임을 증거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사도 요한의 선포는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언이며, 성경 속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2천 년 전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복음은 시작된다.

‘자기 비움의 낮아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내린 첫 번째 결정은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자기 비움의 낮아짐’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명령이나 압력에 의

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사실로부터 성육신은 시작된다. 다시 말해 성육신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 진리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는 이사야의 예언(사 9:6)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과거 시제로 설명함으로써 그 비움이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암시한다. 헬라어 문법 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다’가

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여호와와 종,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이루어진 자기 비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육신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이나 본질을 비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영광과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신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암시하는 것이며, 성경이 예언해온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구속역사 완성한다는 보다 크고 넓은 의미. 십자가 대속 은혜가 성육신의 결론이자 복음의 핵심.

주문장이고, 뒤따르는 세 개의 분사구에 의해 보충 설명되고 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움으로 첫째, 종의 형체를 취하였고, 둘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셋째, 인간의 형체로 나타났음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와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종의 형체(모르페)와 인간의 형체(스케마)를 설명하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종의 형체는 단순히 종의 외모가 아니라 종의 섬김과 겸손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막 10:45)이다. 이에 반해 인간의 형체는 인간의 본성(본질)보다는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움으로 당시 종(노예)이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 특히 이사야에서 기록된(사 52:13-53:12) 고난 받는 ‘여호와와 종’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내려와 ‘여호와와 종’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

이 선언하고 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죄로 인해 타락한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출 33:20).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혹은 대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를 보았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계시, 또는 영광의 상징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와 사자만을 보았을 뿐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face to face)했다는 표현(출 33:11, 신 34:10)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모세도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등)만 보았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출 33:23).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선포하였듯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외형적 나타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순히 어떤 형체나 모습으로의 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어떤 존재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골 1:15).

둘째,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버려 사망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자기를 비우다’의 헬라어 ‘케노’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아라’가 이사야서에서 ‘고난 받는 종 메시아의 죽음’을 지칭하고 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므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다(사 53:12).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핵심을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린 자기 비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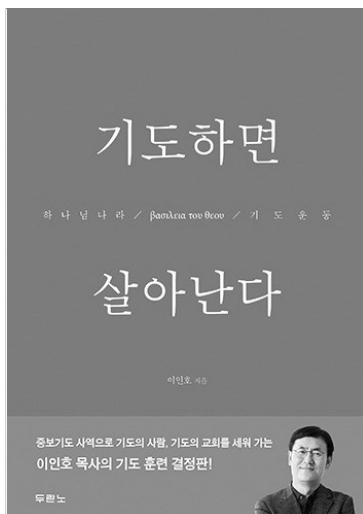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운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린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 희생제물이 된 십자가 사건이다.

성육신을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만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해서 자기를 스스로 버린 십자가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암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경이 예언해온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보다 크고 넓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바로 성육신의 결론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이다. 2천 년 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란노 신간

‘153기도법’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인호 저 | 두란노 | 12,000원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인호 목사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기도 훈련 방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살아난다〉를 펴냈다.

이 목사는 이 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번, 5분씩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153기도법’이다.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하든, 백 번을 기도하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편한 믿음〉
이성조 저 | 두란노 | 12,000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그런데 많은 지성인들이 이러한 기독교의 믿음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는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성조 목사가 펴낸 〈불편한 믿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믿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이 비상식적이거나 비지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믿음이 지성이라는 안정적인 틀을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욕구는 안정성이다. 기독교인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것을 움켜쥐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염려한다.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두려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다.”

꼭 한번 봐야 할 공연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된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공연이 있다.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이다. 이 뮤지컬 한 편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가치를 정하는 기준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목수 엘리가 나무인형들을 만들어서 나무마을에서 살게 했다. 엘리는 자신이 만든 나무인형들을 보면서 매우 행복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마을에 이상한 관행이 생겼다. 잘난 나무인형에게는 금별을, 못난 나무인형들에게는 동표를 붙여주는 관행이었다.

모든 나무인형들이 금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편’도 금별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특별한 재능도,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편은 몸에는 항상 동표만 잔뜩 붙어있었다. 편은 그 동표 때문에 늘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다시 동표를 받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

나무마을에서 황금별대회가 열렸다. 황금별대회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서 가장 많은 별표를 받는 나무인형에게 황금별을 수여하는 대회이다. 나무마을에 살고 있는 나무인형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황금별을 받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

다. 편도 황금별을 받기 위해 대회에 나가 재주를 부렸지만 잦은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낙담해 있던 편이 금별도, 동표도 붙어 있지 않은 루를 만나게 된다. 루는 편이 목수 엘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편은 목수 엘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날 이후 편은 더 이상 금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동표를 받을까 염려하지도 않게 되었다. 금별도, 동표도 더 이상 편을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는 맥스 루케이도의 밀레니언셀러 동화 〈넌 특별하단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2004년 초연 당시 평균 객석 점유율 120%를 기록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6년 아시테지 겨울 연극제 초청공연과 2009 열린극장 창동 공동제작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2014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극장 초청, 2015 한글문화큰잔치 공식초청, 2016 샘터파랑새극장 기획공연, 2017 인도네시아 4개 교회 초청을 받는 등 수많은 관객들로 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제작사 ‘아트컴퍼니 행복자’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문화사역공동체다.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는 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1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1시, 오후 1시 대학로 시온아트홀(서울 종로구 대학로 87길 52 빌리지빌딩 3층)에서 막 오른다. 예매 가격은 2만 5천 원이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70-8719-9106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제6회 온누리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장로들이 흥겹게 노래하고 있다.

“장로들의 고백이 온누리교회의 고백”

온누리장로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예수님 안에서’

제6회 온누리장로합창단(이하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 1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올랐다. '예수님 안에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제6회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부 '내 영혼의 노래', 2부 '예수님 안에서', 3부 '예배와 천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정기연주회에서는 장로합창단, 서빙고 권사합창단, Acts29 연예인합창단, 도곡제임버가 협연했다.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화 '시네마천국'과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OST,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외에도 팝송, 가요, 크리스마스 캐럴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불렀다.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찾은

성도들은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송정숙 권사(성북공동체)는 “장로님들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다”고 고백했고, 노연주 성도는 “나이에 굴하지 않는 장로님들의 열정을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례 장로(가정사역공동체)는 “선배, 동료 장로님들의 열심에 도전을 받았다”고 했고, 이무송 집사(Acts29 연예인합창단 단장)는 “장로님의 열정과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가 더 열심히 쫓아가야겠다”고 고백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장로님들의 찬양 고백이 온누리교회의 찬양 고백”이라며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정말 복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강찬석 장로(장로합창단 단장)는 “장로합창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면서 “더욱 발전하는 장로합창단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로합창단은 뜻 깊은 나눔도 실천했다. 정기연주회 성금을 모아 CGNTV에 기부했다.

이용경 장로(CGNTV 대표)는 “주님 오신 귀한 달에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 CGNTV에 성금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한국기독언론대상 우수상 수상

나눔부문 미니휴먼다큐, 기독문화 부문 다큐멘터리

CGNTV 프로그램이 제10회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미니휴먼다큐 다큐 '수원역 브이로그'가 나눔부문 우수상을, CGNTV 특집 다큐멘터리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는 기독문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CGNTV는 4년 연속 한국기독언론

대상에서 콘텐츠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기독언론대상은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 생명, 정의 등을 전한 언론 보도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com

NGO 더멋진세상 창립 8주년 감사예배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순형홀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8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오는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2층 순형홀에서 드린다. NGO 더멋진세상 창립 8주년 감사예배는 사업보고, 사업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의 후원자라면 누구나 참석 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6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동작공동체 '가스펠페스티벌' 개최

동작공동체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가스펠 페스티벌(Gospel Festival)'을 개최했다. 가스펠 페스티벌은 동작공동체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축제이다. 가스펠 페스티벌에서는 합창, 중창, 현악 3중주, 박순식 권사의 전통무용, 문명희 집사의 오키나와 연주, 박소연 집사의 국악, 가수 나무엔(CCM 가수)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온누리 아트비전 미술치료 특강

CGNTV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나눔사역 프로젝트'

온누리 아트비전이 지난 3일 서빙고동 주민센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1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미술치료 특강은 온누리 아트비전과 CGNTV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나눔사역 프로젝트' 일환이다. 이날 미술치료 특강은 신수하 미술치료사(온누리

아트비전 관리부장)가 '어릴적 고향에서'를 주제로 진행했다.

최은정 팀장(온누리 아트비전)은 "이번 온누리 아트비전 미술치료 특강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트비전 12월 정기전 '최고의 기쁨'

사회선교부 소속 미술인 선교회 온누리 아트비전이 내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정기전 '최고의 기쁨'을 개최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와 양재 온누리교회 1층 원형카페에서 진행된다. 이번 정기전에서는 온누리 아트비전 소속 작가 20여 명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제79기 샤이닝글로리 참가자 모집

제79기 샤이닝글로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9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전주비전대학교 선교관에서 진행된다. 샤이닝글로리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회복집회이다. 문의: 010-7204-0191

2018-2019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일정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10	11	12	13(부천Live)	14	15
본문/주제	보혜사 성령 요 14:16-20 요 16:7-11	진리의 성령 요 14:17 요 16:12-16	성령세례(1) 약속하신 선물 행 1:4-8 행 2:1-6	성령세례(2) 생명 얻는 회개 행 2:32-39 행 11:13-18	성령세례(3)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행 19:1-10	성령세례(4) 성령의 인치심 엡 1:13-14 행 10:38-48
날짜	17	18(수원Live)	19	20(남양주Live)	21	22
본문/주제	성령세례(5) 생수의 강 요 1:29-34 요 7:37-39	성령의 기름부으심 요일 2:27-28	생명의 성령의 법 롬 8:1-4	성령을 따라 행하라 롬 8:5-14 갈 5:16-17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살전 5:16-23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엡 4:1-6 행 2:42-47
날짜	24	25	26	27(인천Live)	28	29
본문/주제	성령의 은사(1)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 롬 12:4-8	성탄예배	성령의 은사(2)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은사 엡 4:11-12 고전 12:4-11	바람처럼 불처럼 행 2:1-6	양자의 영 기도의 영 롬 8:15-27	기적과 큰 기쁨 행 8:5-17
날짜	31	1	2	3(강동Live)	4	5
본문/주제	성령의 열매 (1) 열매를 맺으라 갈 5:22-23	송구영신 신년예배	성령의 열매 (2) 열매를 나누라 갈 5:22-23	성령의 보내심 행 13:1-4	성령의 인도하심 행 16:6-15	성령의 강권하심 행 20:17-24
날짜	7	8(평택Live)	9	10(대전Live)	11	12
본문/주제	성령의 치유와 회복 왕하 5:9-14	성령과 새마음(1) 렘 31:31-34	성령과 새마음(2) 겔 36:22-28	성령과 신유 약 5:14-20	성령과 생기 겔 37:1-14	성령과 회복 겔 47:1-12
날짜	14	15(양지Live)	16	17(안산Live)	18	19
본문/주제	성령과 자유 고전 6:17 눅 4:14-21	성령과 성전 고전 3:16 고전 6:19-20	성령과 직분 고후 3:5-8	성령과 양심 롬 8:16 롬 9:1	성령과 예배 요 4:23-24 빌 3:3	성령과 계시 고전 2:4-8, 12-15

제1224호 | 2018년 12월 9일(주일)

■ 일본어예배 스태프 간증



/ 김상호 팀장(일본어예배)

내가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8년 1월 한 선교단체 소속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보름동안 단기선교를 다녀 온 뒤였다. 그 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일본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봤다. 그 친구는 바쁜 일상에서도 교회 간사로 헌신했다. 그 친구의 귀한 헌신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나도 대학 졸업을 바로 앞두고 오키나와 유학길에 올라 2년 반 동안 학업과 병행하면서 현지 선교사님을 도우며 캠퍼스사역에 헌신하였다. 2002년 귀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던 중,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사무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의 삶과 일본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얼마 후 나는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에 정착 후, 스태프로 헌신하게 되었다.

일본어예배에서는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 동부 이촌동에 살고 있는 일본인 디아스포라 전도 및 복음사역인 키즈 페스티벌(Kids festival), 주일학교(파푸스), 유치원사역(푸치 파푸스), 중·고등부사역(클로버) 등이 있다. ‘글로벌 프렌즈(Global friend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인 유학생 전도 및 교회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정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후속프로그램으로 ‘Global 일대일 제자양육’, ‘QT세미나’, ‘OBC성서강해’ 등도 이어지고 있다. 약 20년 동안 일본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들은 영혼이 순수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넘치고 누구에게나 예의가 바르다. 이러한 민족적 특징이 때로는 마음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복음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오후 5시에 뒤늦게 부름 받은 포도원 일꾼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본을 들어 세계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년이 되면 일본어예배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어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있다. 일본어예배는 사역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역 위주로 움직인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성장과 차세대 리더십 훈련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일본어예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 일본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세우고, 일본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 부모성장학교 수료 간증



/ 오정환 장로(경기도 구리 동창교회)

우리 가족의 변화

아내가 프리덤스쿨을 수료한 이후 부모성장학교를 알게 됐다. 우리 부부가 부모성장학교를 알았을 때는 이미 1주차가 시작된 뒤였다. 신청할까, 말까 망설이던 중에 다음에는 못할 것 같아 용기를 냈다.

7주 동안 이어진 부모성장학교 강의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모든 강의가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가계도 그리기였다. 가계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내와 아이 앞에서 나의 가계도를 설명할 때 둘째 누나 가족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나는 젊었을 때부터 나를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생활했다. 누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작은 매형과 조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누나는 남편과 자녀에게 죄아할 사랑을 나와 셋째 누나에게 나눠줬다. 누나와 누나의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가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내의 원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가계도를 나눈 이후 자녀들의 반응이 변했다. 아빠의 과거를 이야기 해줬더니 매우

흥미 있게 경청했다. 7주 동안 내 아이는 항상 어두웠고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다. 7주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는데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 ‘언젠가는 회복되고 좋아지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가계도 설명 이후 자녀들이 조금씩 부모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안아줘도 밀쳐내는 강도가 덜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시간은 패밀리 타임(Family Time)이었다. 임사라 선교사님의 조 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패밀리 타임을 가졌다.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잘 안다는 핑계로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이지만 속마음을 모를 때가 많았다. 패밀리 타임을 통해 아내와도 진솔한 이야기를 했다. 언제 기뻐는지, 언제 감사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람관계가 그렇듯 내가 낳은 자식들과도 소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지만 가정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 브릿지33+공동체 1다락방 1사역 간증



/ 김현진 성도(브릿지33+공동체)

말이 아니라 행함!

지난달 20일 이른 아침 브릿지33+공동체가 서울역 인근에서 청소봉사를 했다. 브릿지33+공동체는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서울역에서 청소봉사를 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헌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던 중에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께 서울역 청소봉사를 소개받았다.

우리는 서울역 인근 청소봉사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한다. 작은 사역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이곳에 계시는 노숙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노숙인들을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한다. 기도가 끝나면 청소도구를 준비하고 역할 분담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청소에 돌입한다. 이른 아침 서울역은 상당히 지저분하다. 담배꽂초와 술병들이 가득하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줍고 청소할 때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확신한다.

서울역 청소봉사는 브릿지33+공동체 지체들뿐만 아니라 산마루교회 교인들과 노숙인

들도 함께 하고 있다. 청소봉사를 할 때마다 모두 밀짚모자를 쓴다. 밀짚모자를 쓰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자’는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는 하수구 청소를 집중적으로 한다. 하수구에 있는 각종 오물과 폐기물들을 청소할 때 함께 봉사하는 노숙인들이 큰 감동을 받는다. 노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야”라고 말하곤 한다. 그때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느낀다.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식사교제를 한다. 맛있는 해장국을 먹으면서 노숙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노숙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그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노숙인들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손현이 성도(이수공동체)

영적 성숙

9월에 시작되었던 순장학교가 어느덧 마지막 시간을 코앞에 두고 있다. 순장학교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기훈 목사님의 ‘묵상하는 순모임’ 강의를 통해서 순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순모임의 도전과 균형’ 강의를 통해서는 일 중심이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 조호영 목사님의 ‘중보기도’ 강의를 통해서 중보기도는 상대방의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는 것임을 알게 됐다. 그 덕분에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위상승배에 대한 죄악을 내 것으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했다. ‘열방을 꿈꾸는 순모임’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과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민 목사님의 ‘전도하는 순모임’ 강의를 들으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오빠 부부가 생각났다.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노규석 목사님의 ‘이주민을 섬기는 순모임’ 강의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온누리M센터의 역할을 알게 되었다. 3주차 성령수련회도 은혜가 넘쳤다. 수련회 기간 내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해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묵상했다. 그리고 성령수련회를 통해서 나는 내 상처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됐다. 사단은 더 이상 내 상처들을 가지고 역사하지 못한다. 내 상처들이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

순장님들은 순장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가 끝나고 아웃리치를 갔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은혜였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각자의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 안에서 정말 행복했다. 12주 동안 진행된 순장학교는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시간이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께 초점을 두고 맡겨진 순장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로칼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김해기 장로
(한강공동체)

꿈과 희망을 품고 출발한 2018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공동체 대표 장로로 2018년을 시작하면서 지체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우리 공동체 여섯 개 다락방 사역이 잘 진행되었다. 다락방장을 중심으로 예배 안내와 주차사역은 기본이고, 1다락방 1사역의 일환으로 요양원사역, 농어촌교회사역, 이주민사역 등 수많은 사역들을 실시했다. 하계 아웃리치 또한 다락방별로 활발하게 진행했다. 다락방 내 단합과 화합에는 부족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화합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부분을 이해한 리더십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공동체 화합을 위해 지난 5월 공동체 축구대회를 서빙고 은누리교회 주차장 뒤편 농구코트에서 개최했다. 공동체 리더십들의 또 다른 의도는 남성들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일할 젊은 남성들을 발굴하려는 것이었다. 공동체 권사회에서는 교회 주차장 한켠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다. 그날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젊은 남성 성도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또한 한강공동체가 이전보다 더욱 화합하게 되었다.

7월에는 인도네시아로 선교사 후원 및 고아원 사역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참가자 수와 재정을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우리의 걱정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재정과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다. 결혼한 지 25주년은

혼식 기념으로 유럽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부부가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에 참석했던 새가족이 그 자리에서 아웃리치에 참가하겠다고 지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생각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보내주셨다. 걱정했던 아웃리치 재정 또한 공동체 지체들의 후원이 이어져 예산을 훌쩍 넘는 재정이 확보되었다. 그 덕분에 CGNTV 안테나도 후원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어졌다. 출발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한 노트북과 화장품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 선교사님 한 분은 사용하던 노트북이 낡아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새 노트북 장만을 위해 기도하던 중이었다고 고백했다. 화장품을 전달받은 선교사님 가정은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샘플을 사용하던 중이었다면서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를 들어 쓰심에도 감사했다. 감사의 기도는 계속 이어졌다. 당초 공동체 해외 아웃리치에 챔버팀 동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챔버팀이 동행해줬고, 현지 교회 찬양팀과 하나 되어 뜨거운 찬양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한강공동체 지체들은 모두가 한 몸같이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모든 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경계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2018년은 한강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권사칼럼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고효순 권사
(누리사랑부)

나는 20년 가까이 누리사랑부를 섬기고 있다. 내가 누리사랑부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만 해도 지체들과 매우 서먹서먹했다. 당시 나는 말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누리사랑부 지체들은 그런 나를 보고 매우 점잖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누리사랑부 지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머와 불임성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했다. 내가 그들이 가진 장애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면 그들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갈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먼저 내게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걸어주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줬다. 오랜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지금은 한 가족처럼 편해졌다. 내가 누리사랑부를 섬겼다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내가 그들로부터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

20년 전 나는 누리사랑부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우연히 당시 누리사랑부 팀장으로 섬기고 있던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 누리사랑부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남편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함께 섬기자고 제안했다. 남편은 그냥 데려다 주겠다고만 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누리사랑부에 헌신하게 됐다. 무심결에 참여한 누리사랑부에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으로 섬기던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가는 바람에 남편이 누리사랑부 팀장을 맡게 됐다.

누리사랑부 섬김이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도우미로 봉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섬김이들이 오랜 세월 누리사랑부에 헌신해 오신 분들이다 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일이면 다들 알아서 잘한다. 이제는 장애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아도 안다.

우리의 섬김 이상으로 장애인들이 많은 도움을 준다. 장애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헌신과 열정이 오히려 섬김이들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많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감사를 놓지 않는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난다. 누리사랑부에서 받은 은혜가 커서 목회자로 헌신한 분도 있다. 장애의 벽을 넘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다. 비장애인도 하기 힘든 일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다. 누리사랑부 안에는 사랑의 열매도 풍성하다. 누리사랑부 안에서 만난 장애인 부부들이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한 부부도 있다.

내가 처음 누리사랑부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다.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열심히 잘 섬겨야겠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그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누리사랑부 섬김을 사역으로 생각한다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섬기는 일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누리사랑부는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5225-1519

신앙에세이



오은규 목사
(강동 은누리교회)

일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 있다. 한 어린이가 쓴 ‘중독’이라는 동시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 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난 후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 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 동시가 매우 코믹하기는 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본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잔소리 중독에 빠져있다. ‘잔소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

음. 혹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잔소리를 한다. 부모만 그런가? 학교에도, 회사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잔소리가 가득하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한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거나 바뀌기를 원한다.

잔소리를 누가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니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권한과 지위를 가질수록, 타인에 대한 믿음이 없을수록 잔소리를 많이 한다.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내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소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는 행위이다. 심리학자 융(Jung)은 이것을 ‘그림자(Shadow)’라고 말한다. 프로이트(Freud)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른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단점을 인정하기 싫어 상대방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좋은 점과 장점을 자주 칭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림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한두 번 화를 내고 소리친 적은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좋은 소식(복음)을 이야기하셨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냥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하나님도 인간을 향하여 잔소리하지 않으셨다. 말없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잔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셨다.

이 시대는 말이 너무 많다. 매일 상대방을 지적하기 바쁘다. 모든 뉴스와 방송과 미디어를 보면 항상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많다. 사람들은 잔소리를 듣고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배울 뿐이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다. 사도 바울

도 유대교의 율법 잔소리에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 내 가정과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 직장과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내가 속한 교회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이제 잔소리를 접고 나 혼자 잘하면 된다. 어느 기독교 학술대회의 강연자가 했던 말이 인상에 남는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잘하면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 안 하는 것이 세상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더 이상 가르치려 하거나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할 뿐이다. 혹여나 우리가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말을 함으로써 불쾌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사 7:14).

‘친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조차 없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네가 나를 기대하고 원치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표적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탄이 여인의 육체를 타락하게 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육체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굴복시킬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이 한 여인을 무너뜨림으로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루터의 해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구원자를 낳을 수도 없고, 교육을 통해 만들 수도 없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구원자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아담 안에 주어진 타락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죄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원죄까지도 씻음 받는 역사가 구원입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룩함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메시아

셋째, 예수님께서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란 자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일부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한다. 회개는 곧 죽음이다.”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죽음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면 죽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곁을 필요가 없는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고, 우리가 진정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동정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심과 동시에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렸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기 때문에 철저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전쟁 예화가 많은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땅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추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두 살 아래 아기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인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방법



유미호 센터장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전 세계가 일회용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회용컵의 경우 지난 4월 쓰레기 대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줄어드는 추세지만 종이컵은 예외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수록 더한데 교회도 그 중 한 곳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보금자리로 허락하신 숲이 사라져가고 있다. 한 해 종이컵이 160억 개가 사용된다. 국민 1인당 240개, 직장인의 경우 하루 3개에 달하는 종이컵을 쓰고 있다. 종이컵 내부가 코팅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50cm 이상 되는 나무가 1만 5천 그루나 잘려나가 우리의 숨을

조인다. 종이컵 1개가 11g씩 총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 그를 상쇄시키려면 나무 3만 그루 이상을 심어야 한다. 종이컵을 만들 때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 한 번 쓰고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까지 고려하면 서둘러 종이컵 사용을 줄여야 마땅하다.

교회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성도들을 둘러보자. 대부분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카페에서 주문하면 대개 매장에서 마실 것인지를 묻는데, 온누리교회 카페라면 매장 안과 밖에 상관없이 머그컵이나 텀블러(혹은 개인 컵)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도 테이크아웃인데도 음료를 일회용 컵에 주지 않는 곳이 생겨났다. 얼마 전에는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텀블러 5천개와 텀블러 반납함, 살균기능을 갖춘 건조기가 기업후원으로 제공되어 누구든 사용하고 반납하는 ‘0텀블러’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데이터장학금’을 받는 학생봉사단이 회수하고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금지에 종이컵은 빠져 있으니 괜찮다고 여길 게 아니라 생명과 환경을 위해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전환이 먼저다. 교회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물려와 주문하다 보니 설거지가 만만치 않다. 반납 코너에 개인이 설거지하는 시설을 만들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소비행동이라고 인식한다면 음료주문 전에 텀블러나 개인컵을 준비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회용 컵을 요청할 것이다. 부득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종이컵만 따로 모아 버릴 것이다. 일반 쓰레기와 섞어버리면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 모임 때도 모두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모임공간에 컵장이나 컵 걸이를 두고 보관해두면 좋을 것이다. 보관함이 마땅치 않다면 교회에 다회용 컵과 대용량 보온병 대여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모임 인원에 맞춰 컵을 빌려갔다가 깨끗

하게 씻어 살균소독기에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생활용플라자’가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페와 식당은 물론 40여 개의 업사 이클링 업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살필 곳이 있는데 자판기다. 자판기 옆에는 반드시 종이컵 분리수거대를 마련해야 한다. 자판기 옆에 다회용 컵을 비치해두고 종이컵을 넣지 않은 채 사용해도 될 것이다.

쉬운 듯 쉽지 않은 실천들이다. 그 어느 것도 신음하는 창조의 숲을 지키고 돌볼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길이다. 먼저 그 마음을 품은 이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쓴다면 어느 순간 모두 함께 실천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온누리교회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이 캠페인이 다른 교회들로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 땅의 교회들이 창조의 숲을 지키고, 돌보며, 생명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14 온누리신문

2018년 12월 9일(주일) | 제1224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 스페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덜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선교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 모집

분야: 2000선교 선교데이터 입력

후원사역부 선교데이터 입력

기간: 1월 8일 ~ 1월 26일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급: 8,500원

자격: 온누리교회등록교인, 컴퓨터기본

능력, 전화응대 친절히 하는 분

지원: 1차 이력서 이메일 접수(zhpiao2000

@gmail.com), 2차 면접(개별공지)

모집: 12월 20일까지

문의: 박지현 간사(02-3215-320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알람판을 참고

2018 로그온 ICT포럼 'START UP'

일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이메일: onnurismart@gmail.com

문의: 이경희 사역자(02-3215-3651)

신청링크: https://goo.gl/forms/c7mSWU

qbu2Nb0yyv2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롬기도회 일정 안내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5222)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소리!
아름다운 멜로디로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40분** 방송 🎁

12/14 '에클레시아' 편



팝페라의 멋진 하모니로 사랑과 소망을 노래합니다.

12/21 성탄특집 '민세정 재즈퀵' 편



자유로운 재즈 선율로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